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5.11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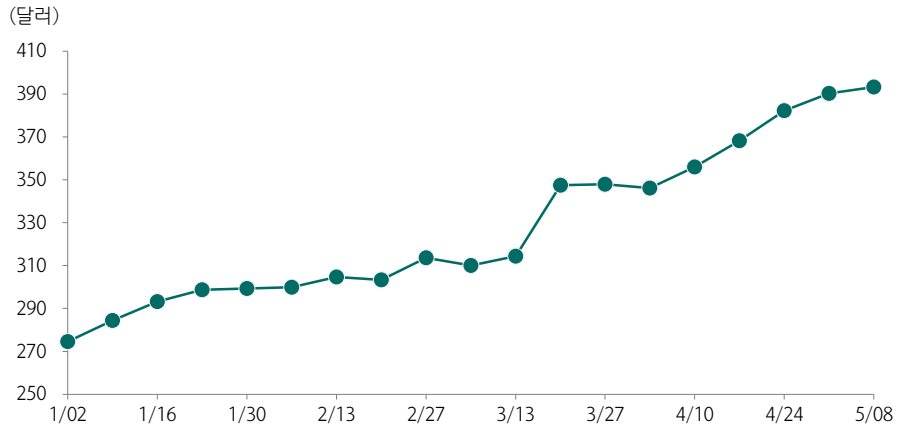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은 컴퓨팅! 더 많은 전력!

-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나스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연초 대비(YTD) 66.2%, 4월부터 55.2% 상승했다. SOX지수의 CY2026 EPS 전망치는 연초보다 43.2% 상향됐다. 이익수정비율*은 1월 33.3%에서 시작했는데 5월 8일 기준으로 76.7%가 됐다. 1월 중순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이익수정비율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횡보 및 일부 둔화 구간을 거쳤으나, 5월부터 다시 급등했다. 지수 상승 구간과 이익수정비율 반등 구간이 맞물렸다는 점은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적 전망 개선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네오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와 아이렌의 실적은 AI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지지했을 것이다. 두 기업 실적의 시사점은 AI 컴퓨트 수요가 아직 과잉 공급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요 둔화 국면보단 데이터센터, GPU, 전력, 자금조달, 구축 속도 등 다방면에서 병목이 낱타나는 공급 제약 국면에 가깝다. 코어위브는 고객 수요가 충분하며, 고성능 AI 클라우드 용량 확보와 공급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렌도 수요를 쫓는 상황이 아닌 양호한 수요를 맞출 만큼 공급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 두 기업 모두 강한 AI 수요를 확인시켜줬다. 코어위브는 FY 1Q26에 400억 달러 이상 신규 약정, 계약 매출 수주잔고 약 1,000억 달러, 활성 전력 1GW 돌파 등을 발표했다. 엔트로픽, 메타, 제인 스트리트 등 AI 관련 고객군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이렌은 가동되고 있는 모든 가용 용량은 이미 소진됐으며, 2026년 말 480MW 규모의 AI 클라우드 용량 판매, 15만 개의 GPU 공급, 연간 반복 매출 37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아이렌은 실적 발표와 함께 AI 산업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5년 34.4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도 발표했다. 하이퍼 스케일러나, AI 랩뿐만 아닌 금융, 기업, 피지컬 AI 등 다방면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으며, 용량만 확보되면 매출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다방면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GPU뿐만 아니라 전력과 부지 확보, 컴퓨팅 전환 능력 등도 시장에서 주목할 것이다. 코어위브는 AI 제약이 AI Lab의 배포 의지가 아닌 성능 좋은 AI 클라우드 용량의 빠른 공급이라고 했다.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전력, 노동력, 메모리, 스토리지, 인프라 가동 능력 등 전방위 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이렌도 부지, 전력망 연결, 인허가, 설계, 조달, 건설, GPU 설치, 네트워킹, 커미셔닝, 자금조달, 고객 인도 등에 대한 공급망 제약을 언급했다. 가동 가능한 전력, 계약 전력, 용량 증설 속도, 컴퓨팅 전환률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 구형 GPU 수요가 강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코어위브는 전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Grace Blackwell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이지만 이번 실적에선 구형 GPU 수요도 강조했다. A100, H100, H200, L40 등의 평균 가격이 모두 전분기보다 올랐고, 단기 용량 대부분은 매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코어위브는 컴퓨팅 사용량의 50% 이상이 추론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이렌도 A100, H100, H200 등과 같은 이전 세대 GPU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구형 가격 제품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론의 수요가 커지면서 GPU의 사용 연수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신제품 수요뿐만 아니라 기존 세대의 잔존 가치와 임대 수요가 유지된다는 긍정적 신호다.
- 용량 확보에 대한 비용 걱정에 대해선 강력한 수요 덕분에 가격 전가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코어위브는 FY 2026 자본지출 가이던스의 하단을 상향했다(기존 300~350억 달러 → 신규 310~350억 달러). 코어위브는 자본지출 전망의 하단을 높인 이유를 부품 가격 상승 영향이라고 설명하면서 가격에 부품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렌은 마이크로소프트 GPU 관련 자본지출의 95%가 선급금과 GPU Financing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지출 부담은 있으나, 고객 계약, 선급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GPU Financing 등으로 확장 가능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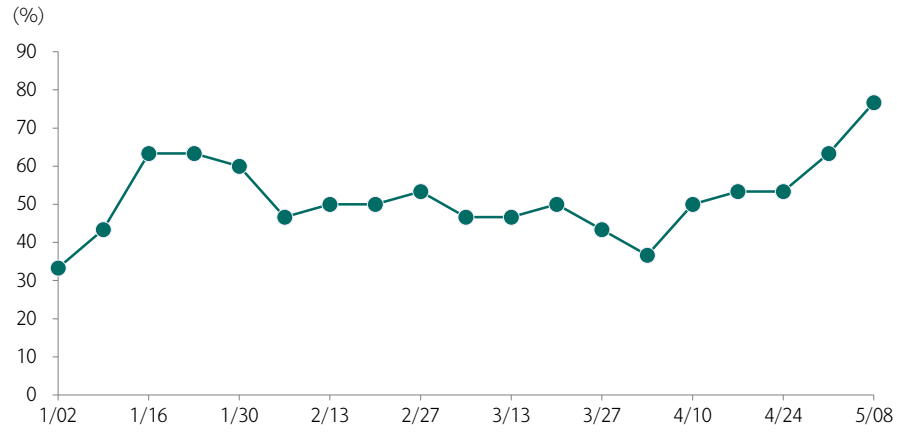
- 코어위브와 아이렌의 실적은 AI 인프라 사이클이 아직 공급 과잉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 AI 수요는 학습에서 추론, 에이전트, 기업용 워크로드로 확산되고 있고, 병목은 GPU뿐만 아니라 전력, 데이터센터, 메모리, 스토리지, 냉각, 자금조달, 구축 속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기 주가 상승 부담은 존재하지만, 실적 전망 상향과 물리적 인프라 부족이 동시에 확인되는 국면에서는 AI 반도체 및 인프라 밸류체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도표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CY 2026 EPS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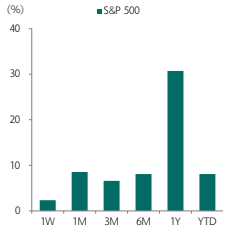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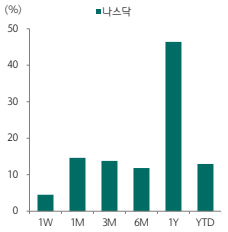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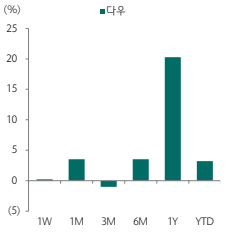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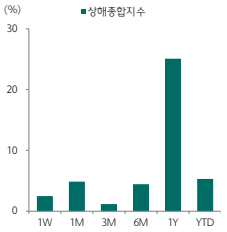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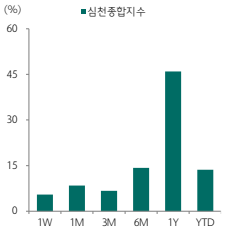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익수정비율 추이



자료: Factset,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398.9	26,247.1	49,609.2	4,180.0	2,875.7
1W (%)	2.3	4.5	0.2	2.5	5.4
					

주) 5월 8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5월 4일~5월 8일) 리뷰: 나스닥 신고가 랠리

- 미국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나스닥이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성장주에 대한 강한 선호, 양호한 투자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증시 3대지수의 가격 변동은 S&P 500 +2.3%, 다우지수 +0.2%, 나스닥 +4.5%다. S&P500 동일가중지수와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각각 0.6%, 1.7% 상승했다. 시장참여자들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 대한 선호도 양호했음을 시사한다. 증시는 상승했지만 변동성지수(VIX)는 1.2% 올랐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수익률은 각각 +3.6%, +0.5% 등이다.
- 미국과 이란의 군사 갈등에 대한 걱정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다. WTI는 7.1%, 브랜트유는 7.3%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접근, 이란의 미국 제안 검토 등이 있었다. 일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남아있지만 당장 확정보단 협상으로 관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긍정적이었다. 일부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이 있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현지시각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된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시장 참여자들은 지정학적 갈등의 진척보단 기업들의 실적에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AMD와 Arm에 관심이 컸을 것이다. 최근 시장참여자들은 CPU에 대한 기대가 크다. AMD는 시장참여자들의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덕분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상승했다. Arm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자체 CPU 공급 속도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차익실현이 나왔다. 이 외 기업들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S&P 500의 CY 2026 EPS 컨센서스는 4월 318.29 달러에서 330.95 달러로 4%, 나스닥은 4월 888.37 달러에서 928.01 달러로 4.5% 상향됐다.
- GICs Level 1 기준 상승 상위섹터는 정보기술(+7%), 커뮤니케이션(+1.9%), 경기소비재(+1.8%)다. 성장주 섹터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선호도를 보여준다. 정보기술은 반도체가 강했다. 반도체 ETF인 SOXX는 한 주 동안 11.7% 상승했다. 경기소비재에선 테슬라의 강한 상승(+9.6%)이 특징적이다. 하락 상위는 에너지(-5.4%), 유틸리티(-4%) 등이다. 에너지는 유가 하락이 부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유틸리티는 방어적 성격이 투자 매력을 낮췄을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은 M7을 비M7보다 선호했다. M7 ETF(MAGS)와 비M7 ETF(XMAG)의 주간 수익률은 각각 +4.1%, +1.2%다. M7은 모두 상승했다(TSLA +9.6%, NVDA +8.4%, AAPL +4.7%, GOOGL +3.9%, AMZN +1.6%, MSFT +0.2%, META +0.1%). 테슬라는 증시 상승과 함께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모델 Y가 미국의 새로운 자율주행 안전시험에 통과했다는 긍정적 소식이 있었지만, 테슬라 전기차에 내장된 후방카메라의 영상 지연으로 약 22만대의 리콜 소식이 있었다. 엔비디아는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강해지며 큰 폭 상승했다. 장 중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 이번 주(5월 11일~5월 15일) 프리뷰: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진척 상황, 물가지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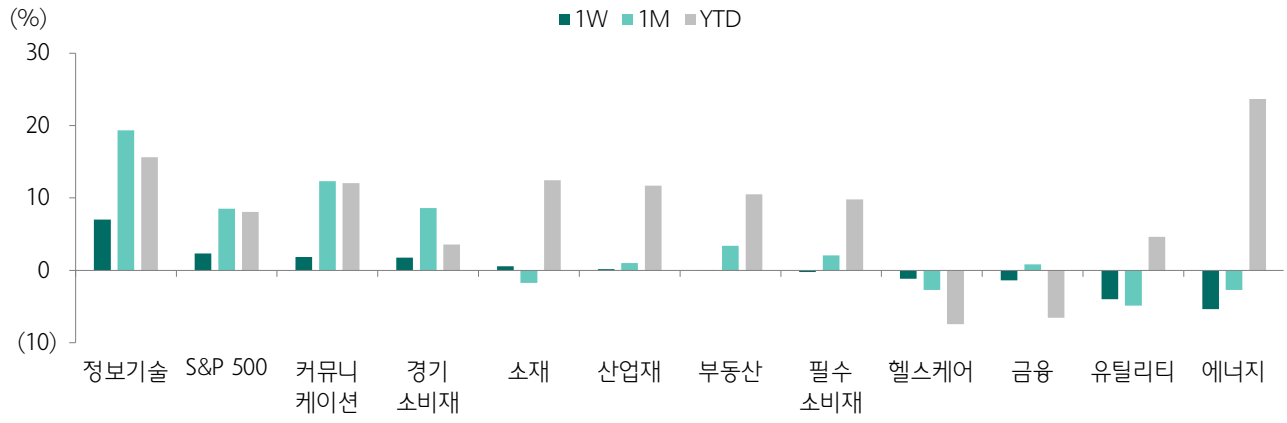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여부,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주목할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는 물가지표 발표다. 현지시각 12일 소비자 물가지수, 13일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발표 예정이다. 남아 있을 수 있는 관세의 영향과 지정학정 불안정이 야기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만 해도 시장참여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다. 파월이 퇴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연준 의장이 취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차기 연준의장 인준에 대한 불안은 낮아졌으나, 관세 영향력과 유가 상승이 야기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4월 헤드라인 CPI(MoM)는 전월치(0.9%)보다 낮아진 0.6%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심 CPI(MoM)의 컨센서스는 3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유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및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유가가 상승했다. 유가 상승은 항공 운임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주요 항공사들(DAL, UAL, AAL)도 불확실성을 대비해 공급을 조절하고 항공료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 영향도 다소 남아있을 수 있다.
- 주거비엔 다소 왜곡이 있을 여지가 있다. 미국 노동 통계청은 CPI의 주거비를 조사할 때 매달 같은 집을 조사하지 않는다. 한 번 조사한 집은 6개월 뒤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다. 2025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다. 10월 데이터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임대료 값은 2025년 4월 수치로 이월 처리했다. 2026년 4월 CPI는 10월 임대료 수준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아진 기준값과 비교될 수 있다. 강한 수치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선 임대료 가격 재가속으로 해석하기 보단 셧다운에 다른 통계적 보정이나 일회성 왜곡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컨스텔레이션 에너지(CEG)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PJM 시장 개편안에 대한 CEG의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PJM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용량시장을 유지하되 안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전력 신뢰도를 고객군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용량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및 보조서비스 시장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이다.
- 기존 용량시장 유지 및 안정화 방안은 전력 구매자들이 장기계약을 통해 단기 가격 급등을 피하도록 하는 구조다. 용량가격을 통한 투자 신호는 유지하되, 소비자 전기요금 충격은 완화하려는 방식이다. 전력 신뢰도 차등 적용은 고객군이나 지역별로 정전 리스크를 다르게 배분하는 개념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신규 고객에게 자체 전력 확보 책임을 일부 부여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비용과 신뢰도 부담을 대형 수요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관된다.
- CEG 입장에서는 개편 논의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CEG는 PJM 권역 내 대규모 원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용량가격 상승의 대표 수혜주로 평가돼 왔다. PJM 개편안이 용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기존 발전자산이 누릴 수 있는 용량수익의 상방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개편 논의의 배경 자체가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 우려라는 점에서, CEG가 보유한 원전 자산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는 11일 4월 기존 주택 판매(예상치 4.05M, 이전치 3.98M), 12일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이전치 95.8) /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39.3K) / 4월 헤드라인 CPI YoY(이전치 3.3%) / MoM(예상치 0.6%, 이전치 0.9%) / 4월 핵심 CPI YoY(이전치 2.6%) / MoM (예상치 0.4%, 이전치 0.2%) / 레드북 YoY(이전치 7.8%), 13일 EIA 단기 에너지 전망 / 미국채 10년물 입찰 / IEA 월간 보고서 /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45%) / 4월 헤드라인 PPI YoY(이전치 4%) / MoM(예상치 0.4%, 이전치 0.5%) / 4월 핵심 PPI YoY(이전치 3.8%) / MoM(이전치 0.15), 14일 4월 헤드라인 소매판매 MoM(이전치 1.7%) / 4월 핵심 소매판매 MoM(이전치 1.9%), 15일 5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이전치 11) / 4월 산업 생산 YoY(이전치 -0.74%) / MoM (이전치 -0.5%)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12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다소 비둘기, 투표권 있음), 14일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매, 투표권 있음), 15일 바 연준 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다소 비둘기,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11일 CEG / CRCL / FOX / ASTS / ACM / HALO / GPRO, 12일 TME / QXO / OCLO / ZBRA / CAMT / UAA / LCTX, 13일 CSCO / BABA / NBIS / DT, 14일 AMAT / ROST / NU / VIK / FIG, 15일 RBC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5/08)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398.9	0.8	2.3	8.5	6.6	8.1	30.7	8.1
나스닥	미국	26,247.1	1.7	4.5	14.6	13.8	11.8	46.4	12.9
다우	미국	49,609.2	0.0	0.2	3.5	-1.0	3.5	20.3	3.2
STOXX600	유럽	612.1	-0.7	0.1	-0.4	-1.5	5.5	13.8	3.4
KOSPI	한국	7,498.0	0.1	12.1	28.0	40.0	82.6	190.9	77.9
KOSDAQ	한국	1,207.7	0.7	-1.0	10.4	8.3	36.6	67.2	30.5
상해종합지수	중국	4,180.0	-0.0	2.5	4.9	1.2	4.4	25.1	5.3
심천종합지수	중국	2,875.7	0.1	5.4	8.4	6.7	14.2	45.9	13.6
항테크지수	홍콩	26,393.7	-0.9	2.4	1.9	-3.2	-1.1	15.4	3.0
TOPIX	일본	3,829.5	-0.3	2.5	2.4	-0.7	15.3	40.1	12.3
니케이 225	일본	62,713.7	-0.2	3.6	10.2	8.8	23.3	67.2	24.6
니프티 50	인도	24,176.2	-0.6	0.7	0.5	-6.8	-5.9	0.7	-7.5
Vietnam	베트남	1,915.4	0.3	3.3	9.4	6.6	20.2	51.1	7.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5.0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투자심리 강해지며 성장주 선호 강화. 초대형 기술기업 중심의 매수세 유입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진전에 따른 유가 하락이 악재
- 유틸리티: 투자심리 강해지며 방어적 성격 섹터 낮아진 선호도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5/4	**젠슨 황 "미국 수출 통제로 中 시장 점유율 0%…역효과 났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SCSP 인터뷰에서 "중국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0%로 떨어졌다"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공개 비판. 불과 2년 전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엔비디아는 규제와 중국 기업들의 자립화로 점유율이 급락했으며, 번스타인은 연초 점유율이 2024년 66%에서 약 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황 CEO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배제는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자립 속도만 높인다"고 경고. 다만 엔비디아의 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중국이 아직 넘어서지 못한 핵심 장벽으로, 하드웨어 판매 제한보다 미국 AI 기술 스택의 글로벌 표준화가 장기 패권 유지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
5/6	**이란 전쟁으로 알루미늄 가격 급등, 美 기업 비용 부담 확대** • 개전 이후 LME 알루미늄 가격이 13% 이상 급등하며 연초 대비 약 19% 상승, 2022년 이후 최고치 기록. 호르무즈 봉쇄로 중동발 공급(전 세계 생산량의 7%)이 차단되고 군사 공격으로 글로벌 공급량의 3%가 시장에서 이탈한 것이 주요인. 포드 CFO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기존 예상치의 약 두 배에 달한다고 언급. 몰슨 쿠어스도 1분기 상품 판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3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히는 등 음료업계도 원가 부담 심화. UBS는 올해 알루미늄 공급 증가율 전망을 2.4%에서 0.3%로 하향 조정하며 단기 개선 가능성 낮게 평가.
5/7	**앤트로픽, 머스크 xAI 데이터센터 임차. 클로드 사용 한도 대폭 상향** • 앤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AI 자회사 xAI가 보유한 테네시주 멤피스 '콜로서스1'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엔비디아 GPU 22만개 이상을 포함한 300MW 규모의 연산 용량을 확보. 이를 즉시 서비스에 투입해 클로드 코드 유료 이용자 사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오퍼스 호출 제한도 2~16배 상향. 클로드 모델 인기 급증에 따른 연산 자원 부족이 협약의 배경으로, 양사가 IPO를 앞두고 투자자에게 내세울 성과가 필요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 그간 머스크 CEO가 앤트로픽을 공개 비난하고 앤트로픽이 행정부와 소송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이뤄진 이례적 협력. 한편 앤트로픽은 AI 에이전트의 자가 개선 기능인 '드리밍'도 공개.
5/8	**미국 4월 비농업 고용 11.5만 증가. 예상치 2배 상회** • 미 노동통계국, 4월 비농업 고용이 11만5천명 증가했다고 발표. 다우존스(5.5만명)·블룸버그(6.5만명) 예상치를 두 배가량 상회하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용 둔화 우려를 불식.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3% 유지. 시간당 평균 임금은 MoM +0.2%로 예상치(0.3%)를 소폭 하회. 예상 외 견조한 고용 지표에 뉴욕증시 선물은 상승, 국채 금리는 하락.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에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고용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5/9	**애플·인텔, 칩 생산 예비 합의** • 애플이 자체 설계 칩 일부를 인텔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내용의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WSJ이 보도. 1년 이상의 협상 끝에 이뤄진 합의로, 어떤 칩을 생산할지는 미확인. 트럼프 행정부가 물밑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러트닉 상무장관이 쿡 CEO를 직접 설득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회동에서 협력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짐. 애플은 TSMC 공급 여력 한계로 인한 칩 부족을 겪고 있으며, 삼성전자 파운드리와도 별도로 협의 중. 인텔은 이번 합의로 엔비디아·테슬라 테라팹에 이어 주요 빅테크 3곳과 파트너십을 모두 체결. 소식에 인텔 주가는 장중 13% 급등.
5/9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48.2로 전망 하회** • 미시간대,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48.2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49.5)를 하회했다고 발표.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47.8로 4.7포인트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 고물가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 부담이 주요인. 미시간대는 "중동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소비심리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나 전쟁 발발 전인 2월(3.4%)을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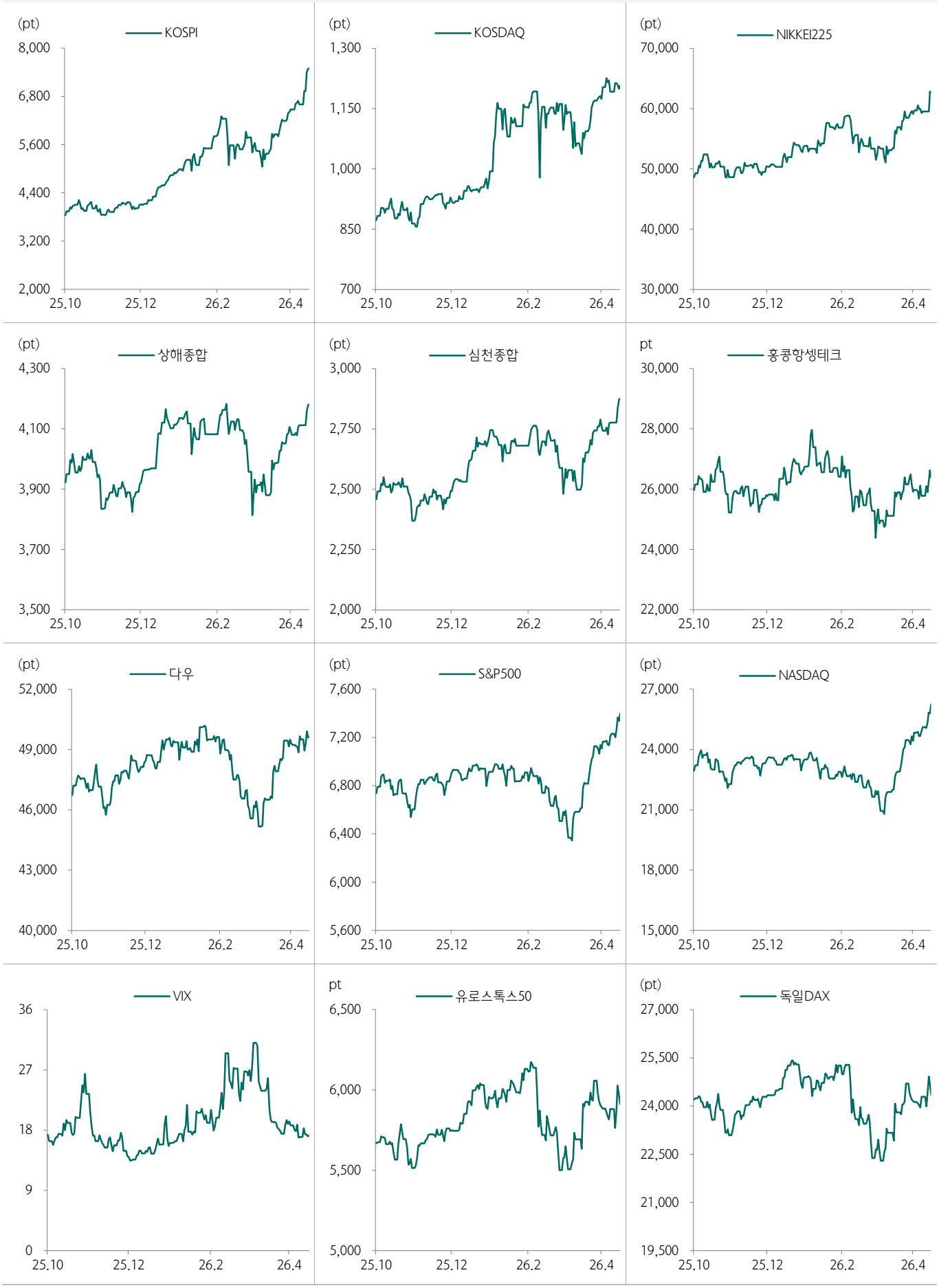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5월)

월	화	수	목	금
				1
				XOM CVX LIN CL AON D EL MRNA
4	5	6	7	8
PLTR VRTX WMB ON CQP FN BWXT STRL GRAB POWL AES	AMD ANET SHOP ETN PFE BUD DUK KKR CMI EMR EOG LITE	ARM NVO DIS APP UBER CVS JCI MAR DASH COHR O CGNX	MCD GILD MCK CNQ HWM MELI ABNB NET CRWV LNG DDOG SATS	TM ENB FLR AU
11	12	13	14	15
CEG SPG FOX STE CRCL MOS ASTS PLUG ACM HALO GPRO	VG NXT EXPD ZBRA OKLO CELH ARMK ODD TME QXO LCTX CAMT	CSCO BABA NBIS DT DOCS STUB MSGE	AMAT ROST BN NGG NU VIK FIG	RLX MGTI RBC
18	19	20	21	22
GRTI ONDS IQ BTDR	HD KEYS SE LUNR	NVDA ADI TJX LOW SNPS TGT HAS	WMT DE MRVL INTU TTWO WDAY DG DLTR DECK GAP BULL BBW	BAH BKE EU
25	26	27	28	29
NAT SBR API MOB	PANW SKY IVA	SNOW A WSM DKS BBY M ANF AAP	RY DELL ZS MDB LULU OKTA	FRO CGC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5/11(월)	• 4월 기존주택판매 (이전 3.98M)
5/12(화)	• 4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이전 0.9%, YoY 이전 3.3%) •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이전 0.2%, YoY 이전 2.6%)
5/13(수)	• 4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이전 0.9%, YoY 이전 3.3%) • 4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이전 0.2%, YoY 이전 2.6%) * 석유수출기구(OPEC) 월간 보고서
5/14(목)	• 4월 소매판매 (MoM 이전 1.7%) • 4월 수/출입 물가지수 (MoM 이전 1.6%/0.8%) * 미중 정상회담 (~5/15)
5/15(금)	• 산업생산 (YoY 이전 0.74%) * 미국 옵션만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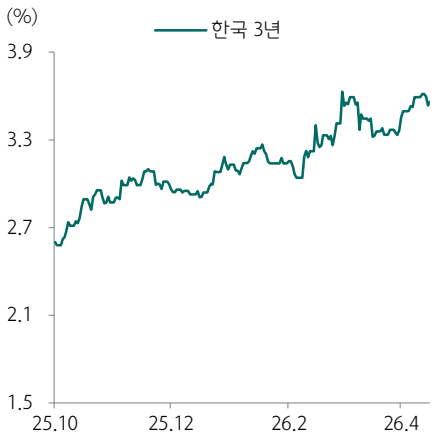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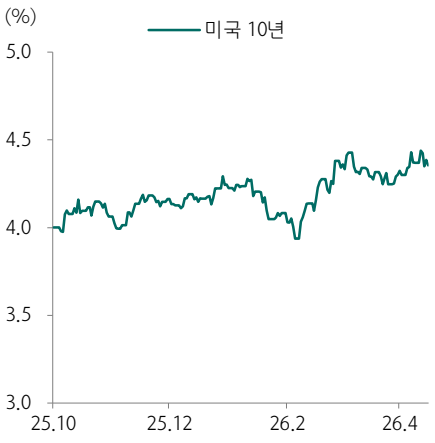

(pt)
KOSPI
8,000
6,800
5,600
4,400
3,200
2,000
25.10
25.12
26.2
26.4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pt)
S&P500
7,600
7,200
6,800
6,400
6,000
5,600
(pt)
NASDAQ
27,000
24,000
21,000
18,000
15,000
VIX
36
27
18
9
0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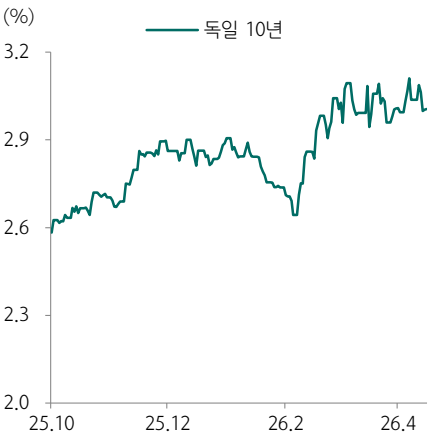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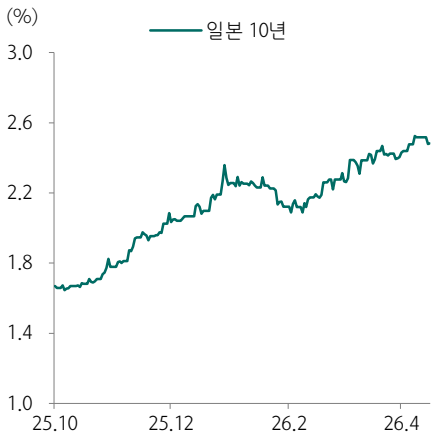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원/엔
10.1
9.7
9.3
8.9
8.5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위안/달러
7.4
7.2
7.0
6.8
6.6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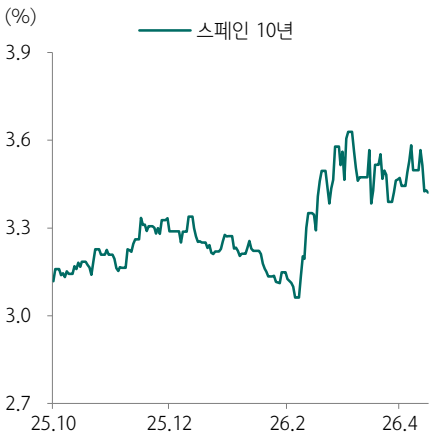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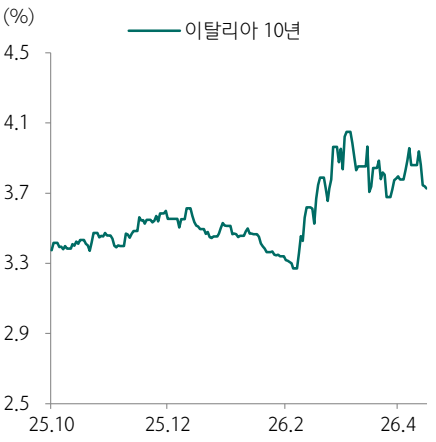

(%)
한국 3년
3.9
3.3
2.7
2.1
1.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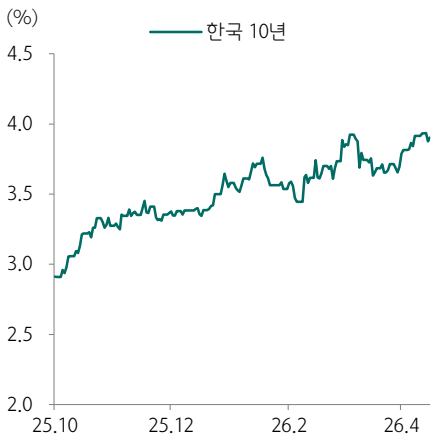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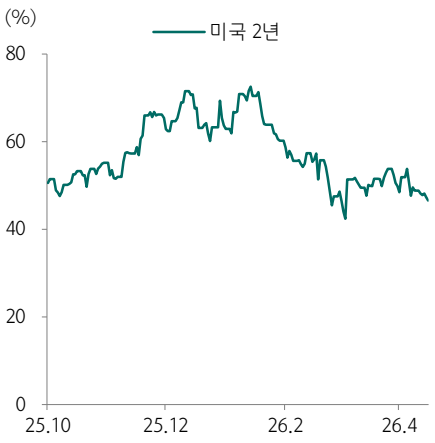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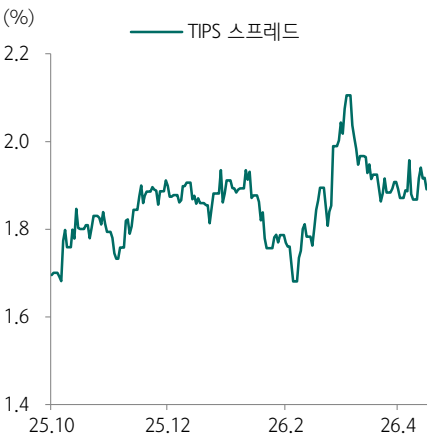

(%)
일본 10년
3.0
2.6
2.2
1.8
1.4
1.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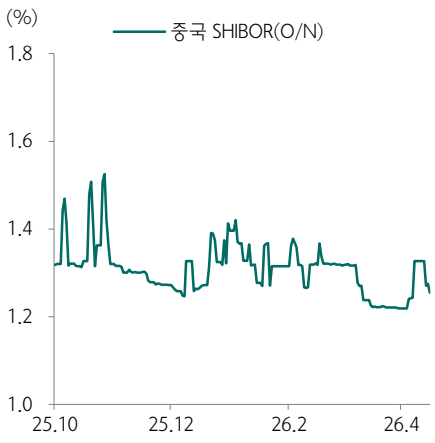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10
25.12
26.2
26.4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10
25.12
26.2
26.4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10
25.12
26.2
26.4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10
25.12
26.2
26.4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10
25.12
26.2
26.4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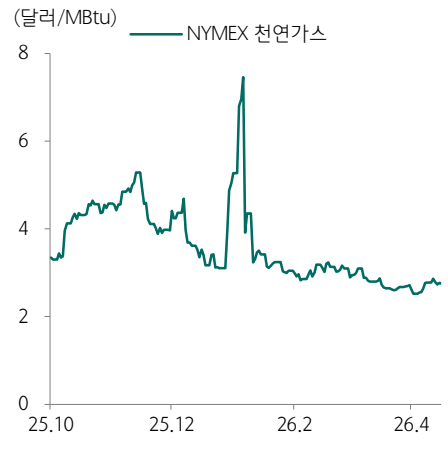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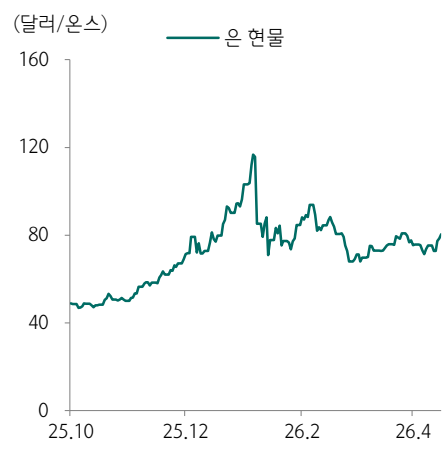
(달러/배럴)
두바이유
130
100
7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450
380
310
240
170
1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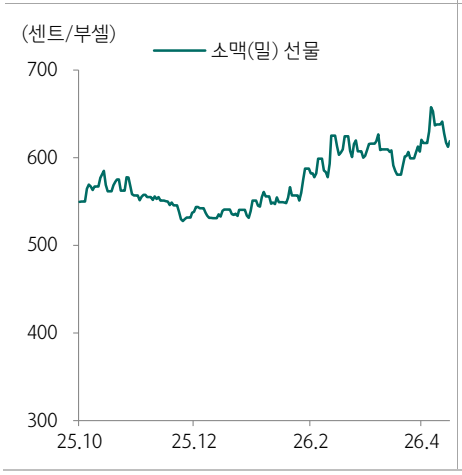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10
25.12
26.2
26.4

(pt)
BDI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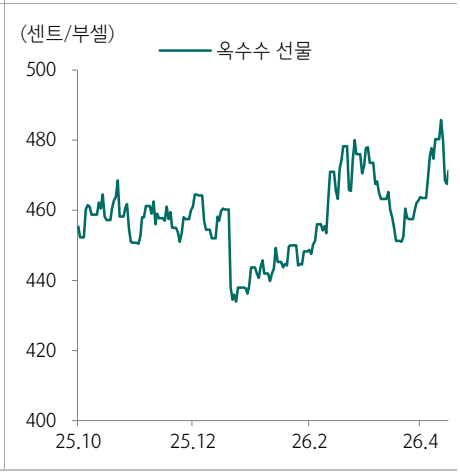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10
25.12
26.2
26.4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10
25.12
26.2
26.4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500
480
460
440
420
400
25.10
25.12
26.2
26.4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5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